

CIFC BiAnnual





CIFC **BiAnnual**

Vol.2 | 2018.02



SHARING KOREA'S BEST FINANCIAL PRACTICES & EXPERIENCES



CONTENTS

- 04 발간사
- 06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소개
- 14 회원사 동정 (금융결제원)
- 16 2017년 하반기 주요사업보고
 - 18 한·태국 금융협력포럼
 - 26 아시아 태평양 및 중남미 지역 중소기업금융 워크숍
- 32 기고 「아태지역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자금조달 개선」
 - 34 이란 자본시장포럼 및 투자유치엑스포
- 36 기고 「이란 자본시장: 성장과 다양성의 보고」
 - 38 제4차 한·영 금융협력포럼
 - 42 제4회 국제금융협력포럼
 - 50 공동 초청연수 지원
 - 52 정례회의 및 간담회
- 54 2018년 주요 사업일정

발간사

“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우리나라의 금융발전 경험을 공유하면서
글로벌 금융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2013년 설립된 이래 다양한 금융협력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전세계에 폭넓은 금융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였고, 이제 지난 4년 동안 이룬 여러 협력 사업들을 정리하면서 반기보고서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해외금융협력협의회 20개 회원기관들은 이전에도 개별적으로 글로벌 금융협력 사업에 참여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해외 금융협력협의회가 설립되면서 회원기관들은 보다 체계적이며 효과적인 금융협력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저희는 국내외 금융협력포럼, 신흥국 고위공무원 초청연수,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 등을 수행해 왔습니다. 회원기관들은 이들 사업을 통해 해외 유수의 기관들과 견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였고 우리나라 금융발전의 경험 및 노하우를 전파하는 데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러한 금융협력 사업은 자개발국의 경제발전 지원이라는 국제사회의 목표에 부합합니다. 금융협력 사업을 통해 자개발국들의 금융부문이 발전하고 이를 통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진다면 이들의 경제발전은 한층 더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선진국들이 개발원조에 나서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며, 우리나라도 공적개발원조를 통해 자개발국의 경제발전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저희 해외금융협력협의회가 지난 7월에 개최하였던 한-몽골 금융협력포럼은 우리나라 금융공기업과 금융회사의 외환위기 극복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던 좋은 자리였으며, 양국은 이를 통해 상호이익 증진을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는 미얀마, 인도네시아, 태국, 이란, 우즈베키스탄 등 우리의 금융발전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많은 신흥국들과 금융협력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 뒤에는 협의회 회원기관들의 적극적인 성원 및 참여와 금융당국의 앞선 협조가 있었습니다.

금융협력 사업은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 합니다. 양국 간의 금융협력을 통해 지역경제의 발전과 이에 참여한 금융회사들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국 금융당국 간의 긴밀한 금융외교와 함께 참여한 금융회사들 간의 긴밀한 상호교류가 필요합니다. 저희 협의회는 금융협력 사업의 중심에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해외금융협력협의회가 활동한 지 5년째 되는 이 시점에 협의회는 금융협력 사업을 정리하고 여러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향후 국내 금융발전에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반기보고서를 통해 국내 금융 참가자들이 금융협력에 대해 더 넓은 이해와 인식을 갖기를 바라며, 이 반기보고서가 계속해서 발간되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17년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의장 **신성환**



Shin, Sunghwan
Chairman,
Council on International
Financial Cooperation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소개

설립배경 & 회원명부

해외금융협력협의회(CIFC)는 국내 주요 금융기관과 금융협회가 글로벌 금융협력을 위해 회원으로 활동하는 협의체입니다. 20개 회원기관들이 글로벌 금융협력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3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회원기관들은 그 동안 축적해온 금융부문의 지식과 경험을 해외 주요 협력기관들과 공유하면서 글로벌 금융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의회는 이러한 회원기관들의 글로벌 금융협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해외 협력국가의 정책당국 및 협력기관, 국제기구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의회는 매년 금융협력포럼, 해외공무원 초청연수, 금융전문가 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국내 금융부문의 글로벌화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PARTNERS



“
해외금융협력협의회(CIFC)는
국내 20개 금융기관 및 금융협회의 협의체입니다.
”

현재 아래 20개의 국내 금융기관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소개
 연혁

2013

KEY ACTIVITIES

- Mar.** **해외금융협력협의회 및 해외금융협력지원센터 활동 시작**

 - 워크숍** 제1회 해금협 워크숍

- Apr.**

 - 회의** 4월 정례회의
 - 연구사업** 「우리나라 경제·금융발전에서 공공금융기관의 역할」 발주

- May.** **회의** 5월 정례회의

- Jun.**

 - 회의** 6월 정례회의
 - 초청연수** 우즈베키스탄 재무부 초청
 - 세미나** 한·우즈베키스탄 금융협력 세미나

- Jul.** **회의** 7월 정례회의

- Sep.**

 - 기타** 해외금융협력협의회 공식 홈페이지 개설
 - 초청연수** 베트남 증권감독위원회 초청 연수

- Oct.**

 - 회의** 10월 정례회의
 - 현지포럼** 우즈베키스탄 보험산업 발전 포럼

- Nov.**

 - 회의** 2013년 정기총회
 - 간담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 해외금융협력 간담회

- Dec.**

 - 강연** 국제결제은행(BIS) 심일혁 박사 초청 강연
 - 초청연수**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위원회(OJK) 부위원장 초청
 - 세미나** 한·인도네시아 금융협력 세미나
 - 워크숍** 제2회 해금협 워크숍

2014

KEY ACTIVITIES



2015

KEY ACTIVITIES



- Jan.** 초청연수 몽골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초청
- Feb.** 회의 2월 정례회의
- Mar.** 회의 3월 정례회의
- Apr.** 국제포럼 제1회 한·영 민관 금융협력포럼 개최 지원
회의 4월 정례회의
- May.** 간담회 금융위원장 주관 금융한류 확산을 위한 간담회
현지포럼 한·미얀마·ADB 금융협력포럼
- Jun.** 회의 6월 정례회의
연구사업 「국내금융의 성공적해외진출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발주
- Jul.** 회의 7월 정례회의
- Aug.** 초청연수 태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초청
세미나 한·태국 금융협력 세미나
- Sep.** 회의 9월 정례회의
- Oct.** 초청연수 덴마크 Danske Bank 부사장 초청
회의 10월 정례회의 개최
- Nov.** 초청연수 미얀마 Myanmar Insurance 초청
세미나 한·미얀마 금융협력 세미나
회의 11월 정례회의
- Dec.** 국제포럼 제1회 국제금융협력포럼(IFCF)
회의 12월 정례회의

- Jan.** 회의 1월 정례회의
- Feb.** 회의 2015년 정기총회
- Mar.** 회의 3월 정례회의
초청연수 IDB Korea Insights Program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은행권 초청
- Apr.** 회의 4월 정례회의 개최
- May.** 연구사업 「인도네시아 금융시장 심층조사」 발주
연구사업 「한국의 자본시장 인프라 발전과정 및 경쟁력 평가」 발주
간담회 금융위원장 주관 해외진출 현장간담회
간담회 베트남 경제부총리 오찬 간담회 개최 지원
국제포럼 제2회 한·영 민관 금융협력포럼 개최 지원
- Jun.** 워크숍 제3회 해금협 워크숍
강연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초청 강연
기타 금융세일즈외교를 위한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 수요조사
- Jul.** 간담회 금융위원장 주관 금융회사 해외진출 간담회
회의 7월 정례회의
- Sep.** 간담회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주재 해외진출지원 간담회
회의 9월 정례회의
- Oct.** 초청연수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위원회(OJK) 부위원장 초청
세미나 한·인도네시아 금융협력 세미나
- Nov.** 회의 11월 정례회의
- Dec.** 국제포럼 제2회 국제금융협력포럼(IFCF)
회의 12월 정례회의

2016

KEY ACTIVITIES



- Jan.** 회의 1월 정례회의
- Feb.** 간담회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주재 해외진출지원 간담회
- 회의 2016년 정기총회
- Mar.** 초청연수 우즈베키스탄 정보기술통신발전부 산하 알로카뱅크(Aloqabank) 초청
- 워크숍 제4회 해금협 워크숍
- 강연 WB 송도사무소 Sameer Goyal 초청
- 초청연수 미얀마 중앙은행, 재무부, 국가경제발전기획부, 건설부, 주택건설개발은행 초청
- 세미나 미얀마 공무원 초청 주택금융 세미나
- Apr.** 회의 4월 정례회의
- Jun.** 현지포럼 한·미얀마 금융협력포럼
- 회의 6월 정례회의
- Jul.** 초청연수 미얀마 계획재무부 차관 초청 및 한·미얀마 금융협력세미나
- 세미나 한·미얀마 금융협력 세미나
- 회의 7월 정례회의
- Aug.** 초청연수 태국 재무부, 중앙은행, 신용보증공사, 과기부 소속 공무원 초청
- 세미나 한·태국 금융협력 세미나
- 초청연수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위원회(OJK) 부위원장 초청
- 세미나 한·인도네시아 금융협력 세미나
- Sep.** 회의 9월 정례회의
- Oct.** 회의 10월 정례회의
- 초청연수 이란 재정경제부, 증권위원회, 여탁결제원 초청
- 세미나 한·이란 금융협력 세미나
- Nov.** 회의 11월 정례회의
- Dec.** 국제포럼 제3회 국제금융협력포럼(IFCF)
- 회의 12월 정례회의

2017

KEY ACTIVITIES



- Jan.** 회의 부서장급 사전회의
- Feb.** 회의 2017년 정기총회
- Mar.** 회의 3월 정례회의
- 강연 기획재정부 박종근 국장 '신흥국과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2017년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방향'
- 강연 법무법인 태평양 김영모, 양은용 변호사 '동남아 주요국가 금융기관 인허가제도'
- Apr.** 회의 4월 정례회의
- May.** 토론회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 위원회 · 해금협 공동 토론회
- 공동연수 한국예탁결제원 · 금융투자협회
- 회의 5월 정례회의
- Jun.** 초청연수 베트남 중앙은행, 재무부, 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초청
- 세미나 한·베트남 금융협력 세미나
- 세미나 베트남 거시경제 및 금융산업동향 세미나
- 간담회 금융인프라 수출 간담회
- 회의 6월 정례회의
- Jul.** 공동연수 신용보증기금 · IBK기업은행
- 현지포럼 한·몽골 금융협력포럼
- Aug.** 기타 반기보고서 발간
- Sep.** 공동연수 한국신용정보원 · NICE 평가정보
- 회의 9월 정례회의
- 현지포럼 한 · 태국 금융협력포럼
- 워크숍 아시아 태평양 및 중남미 지역 중소기업금융 워크숍
- Oct.** 회의 10월 정례회의
- 현지포럼 이란 자본시장포럼 및 투자유치 엑스포
- Nov.** 국제포럼 제4차 한 · 영 금융협력포럼
- 회의 11월 정례회의
- Dec.** 국제포럼 제4회 국제금융협력포럼(IFCF)
- 회의 12월 정례회의
- 공동연수 금융결제원 · 해외금융협력협의회

회원사 동정



해외금융협력협회의 두 번째 반기보고서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동 보고서는 해금협이 지난 5년간 수행하여 온 해외사업을 수록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내실찬 활동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해금협 20개 회원사의 일원인 금융결제원은 국내 금융 정보화 추진을 목적으로 1986년에 설립되어 선진화된 은행간 결제망을 구축하고 이를 서민금융기관, 증권 등 다양한 업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의 통합적인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현재는 102개 금융회사가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결제서비스 뿐 아니라, 정부 등 공공기관과 은행간 정보중계, 은행공동 인증서 발급 등과 같이 다양한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들이 발주하는 금융정보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앞선 지급결제 시스템을 개발도상국에 수출하여 해당국 금융시스템의 인프라를 현대화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현지에 진출할 때 지급결제망에 쉽게 연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울러, 금융결제원과 함께 시스템 개발·구축에 참여하는 국내 민간업체들도 관련 노하우의 축적과 수익 창출이라는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010년에 해외사업 전담조직을 구성하였고 이후 몽골, 라오스, 필리핀, 몰도바, 아르메니아, 캄보디아에 지급결제 인프라 현대화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아르메니아 해외송금시스템 구축사업은 2017년에 완료하였고, 캄보디아 지급결제시

스템 구축사업은 2019년 4월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부터는 월드뱅크가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금융정보 네트워크 관련 교육, 컨설팅 사업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해금협은 금년에도 해외금융협력포럼 개최, 해외공무원 및 금융관계자 초청연수, 회원사의 해외기관 초청연수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은 회원사로서 해금협이 추진하는 해외금융협력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저희들이 보유한 노하우를 전수하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 금융부문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기 시작한 블록체인,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은 개발도상국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해당 기술의 단계별 적용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면, 더욱 내실있는 금융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반기보고서가 20개 회원기관은 물론, 해외의 정부 및 중앙은행 관계자들에게도 중요한 정보의 원천으로 활용되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2월
금융결제원 원장 **이 홍 모**

“
지난 5년간 수행하여 온 해외사업이 수록된
해외금융협력협의회 반기보고서가 20개 회원기관은 물론,
해외의 정부 및 중앙은행 관계자들에게도
중요한 정보의 원천으로 활용되기를 기원합니다.
”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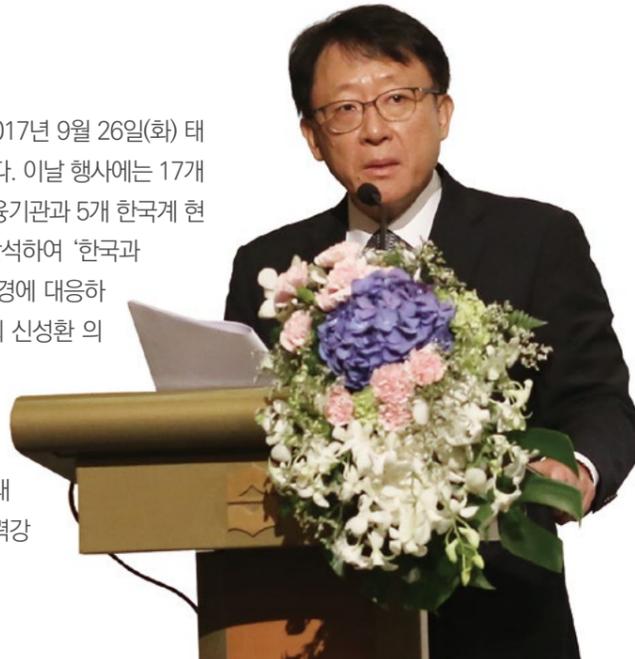
하반기 주요사업보고

CIFC BiAnnual

한·태국 금융협력포럼

Thailand - Korea Financial Cooperation Forum

해외금융협력협의회, 금융위원회, 태국 재무부는 2017년 9월 26일(화) 태국 방콕에서 한·태국 금융협력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17개 회원사로 이루어진 해금협 대표단 및 12개 태국 금융기관과 5개 한국계 현지 금융기관에서 약 100여명의 금융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한국과 태국의 새로운 자본시장 트렌드' 및 '새로운 금융환경에 대응하는 신용산업'에 대해 논의했다.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신성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경제 및 금융 분야의 국제협력은 미래 번영의 주요 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태국 재무부와 금융위원회의 당국자들은 환영사와 축사를 통해 양국의 정책방향과 금융환경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핀테크 등 금융혁신 부문의 협력강화 및 공동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Program 프로그램

시간	내용
08:30~10:25	개회사 신성환 의장, 해외금융협력협의회 환영사 H.E. Somchai Sujjapongse, Permanent Secretary, Ministry of Finance of Thailand 축사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 축사 주 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노광일 대사
10:25~12:00	Session 1 '한국과 태국의 새로운 자본 시장 트렌드' 태국 경제 성장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 Pattera Dilokrunghthirapop, Chairman, Association of Thai Securities Companies 한국 자본 시장 현황 및 도전과제 금융투자협회 국제부 심명수 차장 한·태국 자본시장 협력방안 한국거래소 해외사업부 해외사업개발팀 서정민 과장 자본시장 4.0 시대로 변화하는 과정 Pataravasee Suvamsorn, Executive Vice President, Head of Market Operations Department, The Stock Exchange of Thailand 글로벌 자본시장 및 Post-Trade 산업의 새로운 트렌드 한국예탁결제원 해외사업부 고흥석 과장
12:00~13:00	Session 2 '새로운 금융환경에 대응하여 변화하는 신용산업' 중소기업의 지원 인프라 Nitid Manoonporn, President, Thai Credit Guarantee Corporation 변화하는 신용산업에서의 신용보증기금의 역할 신용보증기금 국제업무팀 홍선영 차장 태국 신용정보사업 운영 Phadet Charoensivakorn, Senior Executive Vice President, Head of Business Technology and Operations Line, National Credit Bureau 신용정보 산업의 경험 및 과제 공유 NICE 해외사업팀 이양선 과장
13:00~14:30	네트워킹 오찬



한·태국 금융협력포럼

Thailand - Korea Financial Cooperation Forum

Session 1

한국과 태국의 새로운 자본시장 트렌드

첫 번째 세션에서는 태국증권사협회(ASCO)의 Pattera Dilokrunghthirapop 위원장, 금융투자협회의 심명수 차장, 한국거래소의 서정민 과장, 태국증권거래소(SET)의 Pataravasee Suvarnsorn 총괄부사장, 한국예탁결제원의 고흥석 차장이 발표했다.

태국 경제성장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

Pattera Dilokrunghthirapop | Chairman | Association of Thai Securities Companies



Pattera Dilokrunghthirapop 위원장은 태국의 금융시장 주요 경제지표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 뒤 태국 경제 성장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첫째, 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자본시장 관련 핀테크 기술의 발전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증권회사의 핀테크 사용 지원,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본시장 관련 결제 시스템 및 펀드 서비스 플랫폼, 중앙제어 전자 신원조회 플랫폼 등과 같은 자본시장 관련 인프라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해외투자 관련 규제 및 증권회사의 외환 포지션 한도 규제 등 자본시장 관련 규제가 완화되어야 태국 경제가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자본시장 현황 및 도전과제

심명수 | 차장 | 금융투자협회



심명수 차장은 종합주가지수 동향,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금융 현황, 증권사 등 시장참가자 현황, 해외투자 동향 등을 통해 한국 자본시장을 살펴보고 한국시장이 직면한 과제와 도전에 대해 설명했다. 주요 국가 대비 비금융자산의 비중 중 특히 부동산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의 가계자산 현황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다음의 2가지 변화에 주목했다. 첫 번째는 여전히 현금과 예금에만 집중적으로 치중되어있는 가계 금융자산이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08년 이후로는 금융자산 성장률이 비금융자산 성장률을 앞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 변화는 한국 자본시장의 성장세로 GDP 대비 시가총액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시장기반 금융이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덧붙여, 저금리, 저성장이라는 새로운 규범으로 자리잡은 상황과 배당 수익성의 증가가 한국 자본시장의 주요 성장 요소라고 설명했다.

한·태국 자본시장 협력방안

서정민 | 과장 | 한국거래소



서정민 과장은 한국거래소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함께 거래소의 글로벌 협력사태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거래소는 시가총액 기준 세계 13위, 거래량 기준 세계 10위, 상장사 기준 세계 8위 수준으로 광범위한 자본시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 유일의 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소로 소개했다. 한국거래소의 글로벌 협력 부문에 대해서는 ①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증권 거래소 설립을 지원한 경험, ②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베트남의 개별 시장에 최적화된 IT 시스템 솔루션을 제공한 경험, ③ 시장 유동성이 부족한 국가에 정책과 규제 개선을 위한 자문을 제공한 경험 등에 대해 발표했다. 태국과의 협력사례로는, 과거 태국 자본시장에 최적화된 IT 솔루션 시스템을 개발 및 수출한 경험에 대해 소개했다. 나아가 한국거래소는 미국의 CME(시카고상품거래소), 독일의 EUREX(유럽 파생상품 거래소)와 같은 선진 시장들과의 글로벌 제휴사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4.0 시대로 변화하는 과정

Pataravasee Suvarnsorn | Executive Vice President | The Stock Exchange of Thailand



Pataravasee Suvarnsorn 수석부사장은 1975년 설립 이래로 태국 증권거래소가 태국의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현재 태국의 자본시장은 아세안 국가들 중 가장 시장유동성이 뛰어나며 시가총액 기준 1위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태국 자본시장은 국내 투자자와 기업, 해외 투자자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인터넷 거래를 통해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시중은행과 협력하여 개인 투자자 확대에 성공하였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등 주변국 대비 태국의 기업들이 지난 4년간 순이익률 면에서 월등히 높은 성과를 기록하였으며 이러한 태국 기업의 아세안 지역 진출은 지역 경제 성장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태국 정부에서 자본시장 4.0 시대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비즈니스 플랜 2017'의 주요 개념인 ① 자금조달 ② 투자유치 ③ 인프라와 역량 제고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글로벌 자본시장 및 Post-Trade 산업의 새로운 트렌드

고흥석 | 차장 | 한국예탁결제원



고흥석 차장은 거시적 글로벌 금융환경 및 글로벌 자본시장 트렌드가 Post-trade 산업 및 CSD(증권중앙예탁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발표했다. 거시적 글로벌 금융환경 측면에서는 글로벌 금융환경의 가변성 증가를 언급하며,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와 정치적 요인에 의한 불확실성 확대, 금융규제 강화, 사이버 보안 중요성 증대에 대해 주목했다. 글로벌 자본시장의 트렌드로는 규제 강화와 IT 발전을 기반으로한 파생상품의 지속적 성장, 대형 투자은행의 비즈니스 모델 구조조정 심화, 자본시장 내 가치이전, 자본 시장 분화 심화 등을 꼽았다. 향후 글로벌 Post-trade 산업에서는 혁신적인 IT 기술을 기반으로한 결제 및 담보관리 서비스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블록체인 기술 활용 논의 및 도입시도를 활성화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결제주기 단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국가간 거래 및 결제효율화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태국 금융협력포럼

Thailand - Korea Financial Cooperation Forum

Session 2

새로운 금융환경에 대응하는 신용산업

두 번째 세션에서는 태국 신용보증공사(TCG)의 Nitid Manoonporn 사장, 신용보증기금의 홍선영 차장, 태국 국가신용정보(NCB)의 Phadet Charoensivakorn 수석부사장, NICE의 이양선 과장이 발표했다.

중소기업의 지원 인프라

Nitid Manoonporn | President | Thai Credit Guarantee Corporation



Nitid Manoonporn 사장은 태국의 신용보증산업 현황,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 태국을 포함한 아세안 주요국에서는 중소기업의 68%가 금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추정상 1조 달러에 가까운 신용 갭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태국 중소기업의 경우 현재 오직 45%만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며 이는 중소기업 육성에 있어 태국 정부가 중소기업 금융접근성 제고에 대한 아주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그는 태국 신용보증공사의 신용보증시스템과 중소기업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최근 새로 출시된 PGS(Portfolio Guarantee Scheme)라는 혁신적인 상품에 대해 소개했다.

변화하는 신용산업에서의 신용보증기금의 역할

홍선영 | 차장 | 신용보증기금



홍선영 차장은 신용보증기금의 주요 활동 및 성과, 변화하는 신용보증기금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주요 활동 및 성과로는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신용보증을 제공하여 신용보증기금 설립 이래로 전체 기업대출 중 중소기업 대출 비율을 2배 이상 확대하는데 기여하고 금융위기 시에 신용보증을 확대하여 신용경색을 막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한 점을 꼽았다. 이어 최근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신용보증기금의 역할 변화에 대해서는 유망 창업기업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발표했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하락과 실업률 증가 등으로 혁신적인 창업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유망창업기업 프로그램, 퍼스트 펙션 보증 등 맞춤형 금융 서비스뿐만 아니라 민간 액셀러레이터, 대학,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과 협업하여 다양한 비금융 서비스를 윈스톱으로 지원하는 창업기업 육성 플랫폼인 Start-up NEST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국 신용정보사업의 운영

Phadet Charoensivakorn | Senior Executive Vice President | National Credit Bureau



Phadet Charoensivakorn 수석부사장은 태국의 신용정보산업의 발전사 및 국가신용정보의 비전, 주요 서비스 등에 대해 설명했다. 2016년부터 신용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태국 국가신용정보는 금융기관의 신용 리스크 관리능력을 강화하고 신용 데이터 통합을 위한 표준을 마련하는데 앞장섰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개인 및 기업 신용정보, 파산정보 등을 포함하는 통합 신용정보시스템, 소비자 및 중소기업의 신용점수 등 신용평가 관련 시스템, 사기방지 솔루션, 포트폴리오 모니터링 등 태국 국가신용정보의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들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태국에서 급성장중인 모바일 티켓팅, 지급결제, 광고, 인증 관련 비즈니스에서 신용정보사업의 새로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신용정보 산업의 경험 및 과제 공유

이양선 | 과장 | NICE 평가정보



이양선 과장은 NICE그룹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 신용정보산업의 발전 경험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NICE는 종합금융인프라 서비스 제공자로서 개인과 기업의 신용 정보를 모으고 처리하며, 경제 활동 인구의 데이터베이스 축적을 통해 다양한 신용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한국이 두 번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제한적으로 공유되던 신용정보 체계를 재정비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에 적절히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시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여한 경험에 대해 소개했다. 신용도에 따른 금융 배척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NICE는 Subprime Credit Bureau와 Technical Credit Bureau 운영, 신용평가 활용데이터 확대, 신용평가방법론 등을 개발하여, SME 및 금융 소외자들의 금융접근성을 개선하고자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신용정보산업이 당면한 글로벌 공통의 과제는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간의 균형유지, 빅데이터 등 비정형 데이터 활용에 따른 프라이버시 이슈, 국가간 신용정보 교환 등이라고 발표했다.

한·태국 금융협력포럼

Thailand - Korea Financial Cooperation Forum

태국증권거래소 총괄부사장 인터뷰

Pataravasee Suvarnsorn 총괄부사장은 1991년 태국증권거래소에 입사해 지난 26년간 거래소를 위해 일해왔다. 전략기획부, 시장감시부, 무역사업부 등 여러 부서를 거쳐 현재 총괄부사장이자 시장운영 부서의 총괄책임자를 겸임하고 있다.



Pataravasee Suvarnsorn | Executive Vice President | The Stock Exchange of Thailand

Q 먼저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포럼에 참석하신 소감을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A 저야말로 한-태국 금융협력포럼에 대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행사는 한국과 태국 금융시장의 주요 인사를 한 곳에 모시기 위해 양국의 자본시장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마련한 자리입니다. 모든 세션에서 양국 자본시장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고 특히 거래 및 사후정산 부문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각국 신용평가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고찰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Q 태국 자본시장의 현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태국 자본시장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자본조달, 투자 및 청산 관련 니즈를 충족함으로써 금융 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태국증권거래소는 지난 40년 간 자국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고, 그 결과 태국 자본시장은 높은 유동성을 자랑할 뿐 아니라 아세안 국가 중 가장 효과적인 자금조달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태국 증권시장의 투자자 기반은 매우 다각화되어 있으며 기업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글로벌 자본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국은 새로이 다가올 디지털 경제와 변화를 위한 대비에 힘쓰고 있으며, 그 핵심은 훌륭한 인프라와 역량을 갖추고 더욱 적극적으로 유연한 태도로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태국증권거래소의 단기 및 장기 목표는 무엇인지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다면 어떤 분야가 가장 효과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태국증권거래소는 "모두를 위해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자본시장 구축"이라는 비전 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은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며, 소수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자본시장이 직간접적으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이득을 제공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기업의 견고한 성장은 곧 국력의 향상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한다고 저희는 믿고 있으며, 이러한 비전에 강한 의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SET 그룹과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등 한국 기관과의 견고한 파트너십이 거래 및 사후정산 부문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동 목표 및 비전 추구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Q 단기 및 장기적으로 한국과 태국의 잠재적 금융협력 분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장기적인 파트너십에 기반하여 한국 파트너기관들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개발한 청산시스템 SET Clear를 태국 청산공사(TCH)가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협력의 주요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더하여 지난 수년간 다수의 신규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자본시장발전 및 시장인프라 관련 지식을 활발하게 교환했으며, 이를 통해 태국 정부의 4.0 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자본시장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차기 주력 분야로는 양국의 인적 교류 촉진을 꼽고 싶습니다.

태국 국가신용정보 수석부사장 인터뷰

Phadet Charoensivakorn 수석부사장은 2016년부터 지금까지 태국 국가신용정보의 수석부사장 및 Business, Technology and Operations Lines의 책임자를 겸임하고 있다. 신용조사업에 종사하기 전에는 통신위성회사에 7년간 근무하였으며, 신용조사업에는 특히 IT 및 운영 부문에서 15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다.



Phadet Charoensivakorn | Senior Executive Vice President | National Credit Bureau

Q 먼저,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포럼의 전반적인 인상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A 먼저 이 자리를 빌어 NCB를 포럼에 초대해주신 해금협과 태국 재무부, 그리고 NICE 평가정보 측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매우 시의 적절하게 개최된 포럼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아주 흥미롭고 현재 상황을 통찰력 있게 담아낸 발표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네트워킹 행사 역시 사전에 좌석 배치가 되어 있어서 수월하게 진행되었고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현재 태국 신용평가업계의 화두는 무엇인가요?

A 태국의 신용평가업계는 밀레니엄 시대 생활방식의 변화와 새로운 디지털 사회의 혁명 속에서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 중심으로 변모하는 과도기를 겪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국 신용평가업계 인프라를 이루고 있는 기관으로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금융산업을 지원하고 있고, 작년에는 신속한 리스크 예측과 대출 승인을 가능하게 하는 신용평가 수단을 출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사기방지 솔루션 등 기타 부가가치 서비스를 모색하여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대출 승인의 효율성을 높이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미래 사회는 빅데이터와 빠르게 변화하는 미지의 디지털 기술로 가득한 정보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태국의 신용평가업계는 운영방식의 변화를 꾀해야만 합니다.

Q NCB의 단기 및 장기 목표는 무엇인지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다면 어떤 분야가 가장 효과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앞서 말씀 드렸듯이 저희는 신용정보를 수집 관리함으로써 태국 신용평가업계 인프라의 일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 및 규제당국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금융기관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부가가치 서비스 및 상품을 제공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 리스크를 줄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규제당국은 신용평가기관이 제공하는 미시적 데이터를 정책입안에 활용하여 거시적으로 금융산업을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저희는 태국 국민들이 올바른 예금 및 여신에 대한 이해도를 갖추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는 몇 년 안에 달성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며 매일 차근차근 노력해야만 이룰 수 있는 것들이기에 단기 또는 장기 목표라고 지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Q 앞으로 태국 신용평가시장에는 어떤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까요? 또한,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정책 및 규제적 변화가 있나요?

A 향후 신용평가기관의 발전을 위해서 태국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부가가치 서비스를 시도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태국 신용평가시장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함에 있어 두 가지 관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수요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법규 관련 사항입니다. 앞으로 시장에 출시할 상품을 개발할 때 이 사항들을 감안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용등급 개선 및 사기 방지 솔루션 도입을 통한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으며, 이동통신사 정보 등의 빅데이터 분석기술이 사용가능해질 경우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디지털 시대로 진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용평가에 관한 법률이 대폭 수정되지는 않았지만 신용정보업계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태국 중앙은행이 정책 및 규제를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및 중남미 지역 중소기업금융 워크숍

Workshop on SME financing and the role of development banks in Asia and the Pacific and Latin America

해외금융협력협회는 U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UN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경제위원회(UN ECLAC), 아시아재단(AF),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금융소외계층포용연합(AFI)과 함께 2017년 9월 27일(수)부터 28일(목)까지 1박 2일간 방콕 UN 본부에서 아시아 태평양 및 중남미 지역 중소기업금융 워크숍을 개최했다. 동 워크숍에는 전세계 29개국에서 약 92명의 전현직 중앙은행 및 재무부, 금융감독기관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UN ESCAP의 함홍주 사무처장과 UN ECLAC의 Daniel Titelman 국장의 개회사에 이어 금융위원회의 김용범 부위원장이 동영상 메세지로 환영사를 전달했다. 총 이틀에 걸쳐 진행된 동 워크숍은 다음의 8개 세션으로 활발히 전개되었다.

- 1 아시아 태평양 및 중남미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제도 소개
- 2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향상과 금융안정의 트레이드오프
- 3 상업은행과 마이크로파이낸스기관의 협력방법
- 4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금융인프라 강화
- 5 중소기업 금융접근성 강화를 위한 개발은행의 역할
- 6 핀테크가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 7 국가간 경험 공유 분과토의
- 8 토의 결과 및 협력방안 발표



Session 1

아시아 태평양 및 중남미 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소개

아시아 태평양 및 중남미 지역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현황과 과제, 최신통향 등 이후 워크숍에서 언급될 주요 주제에 대한 간략한 발표가 진행됐다.

Session 2

금융접근성 향상과 금융안정의 트레이드오프

소비자나 중소기업에 대한 급격한 신용 확대는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2010년 인도의 마이크로파이낸스 사태, 2016년 중국의 P2P 부실 플랫폼 사태와 같은 과도한 부채와 금융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금융안정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알맞은 규제 정비와 소비자보호정책 강화, 금융교육의 장려가 중요하다. 참석자들은 이와 관련한 국가별 사례와 경험에 대해 공유했다.

Session 3

상업은행과 마이크로파이낸스기관의 협력 방법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성과 높은 거래비용으로 몇몇 국가의 상업은행들은 이들 비용의 절감을 위해 중소기업 대출만을 위한 특별유닛을 만들거나 마이크로파이낸스기관에 외주를 줌으로써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확대하고자 노력해 왔다. 후자의 경우 대출자와 마이크로파이낸스기관 간의 정보교환으로 정보비대칭 문제와 부실대출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세션에서는 은행과 마이크로파이낸스기관 사이의 다양한 협력 형태의 비용과 편익에 대해 논의하고, 혁신적 중소기업 금융지원모델 육성을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했다.

Session 4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금융인프라 강화

상업은행과 마이크로파이낸스기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국가의 신용평가 기관, 신용보증 기관, 담보등기제도 등 대출 관련 인프라가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은행과 마이크로파이낸스기관의 협력을 위해 마이크로파이낸스기관의 성과에 대한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개발도상국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필요한 금융인프라 강화를 위한 주요 우선순위에 대해 논의하는 이 세션에서는 특별히 신용보증기금의 이종구 팀장이 한국의 신용보증제도 운용경험에 대해 소개하여 큰 관심을 받았다.



아시아 태평양 및 중남미 지역 중소기업금융 워크숍

Workshop on SME financing and the role of development banks in Asia and the Pacific and Latin America

Session 5

중소기업 금융접근성 강화를 위한 개발은행의 역할

국가 개발은행은 혁신적 상품개발 또는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향상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국가 개발은행이 기존의 시장 메커니즘을 왜곡하지 않고 동시에 국가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 세션에서는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국가 개발은행이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향상에 기여한 우수사례들에 대해 논의했다.

Session 6

핀테크가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핀테크 회사들은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중소기업 금융을 위한 혁신적인 해결책으로 핀테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규제당국은 금융혁신을 지원하는 것과 금융안정성을 유지하는 것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맞춰야 한다. 해외금융협력협의회가 총괄 기획을 맡은 이 세션에서는 핀테크가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본 세션에서는 한국재무학회의 오세경 회장이 사회자로, 기술보증기금의 이형승 부부장과 미국의 스타트업 회사인 FinTech4Good의 Xiaochen Zhang 회장, 일본 중앙은행 핀테크지원센터의 Takashi Hashimoto 국장, 멕시코의 스타트업 지원기구인 PlayBusiness의 Femanda de Velasco 재무담당이사, 브라질 중소기업지원기구(SEBRAE)의 Alexandre Guena de Araujo 매니저가 본 세션의 패널로 참여했다.

Session 7&8

국가간 경험 공유 분과토의 및 토의 결과, 협력방안 발표

이 세션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및 중남미 지역의 모든 참가자들이 소그룹을 이루어 지난 이틀간 중소기업금융 워크숍에서 진행된 주요 발표 내용에 대해 토론하고 국가별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분과토의 후 각 소그룹별로 토의 결과 및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 전체 워크숍 관련 발표자료 및 회의 결과 전문은 UN ESCAP 홈페이지 (<http://www.unescap.org/events/workshop-sme-financing>)에서 다운로드 및 열람 가능하다.



아시아 태평양 및 중남미 지역 중소기업금융 워크숍

Workshop on SME financing and the role of development banks in Asia and the Pacific and Latin America

신용보증기금 팀장 인터뷰

신용보증기금 이종구 팀장은 1997년 신용보증기금 입사 후 2011년부터 2017년 까지 국제업무팀에서 카자흐스탄, 몽골, 인니 등 개도국을 상대로 중소기업 금융 지원제도, 신용보증제도 및 리스크 관리, 중소기업 신용정보 및 신용평가시스템에 대한 정책자문을 수행하였으며 현재 국제업무팀의 총괄 팀장 직을 맡고 있다.



이종구 | 팀장 | 신용보증기금

Q 먼저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0개 국가의 재무부, 중앙은행 및 금융 관계자들에게 한국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해 발표하신 소감 부탁드립니다.

A 우선 유엔 ESCAP과 ECLAC 등 권위 있는 국제기구가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해외금융협력회의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큰 회의에서 발표할 수 있어 무척 영광스러웠습니다. 난생처음 UN 빌딩을 방문해 본 것도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UN 회의장은 TV에서 보던 UN 총회장처럼 각국 대표들이 앉아있어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신보가 발표한 세션은 중소기업금융 인프라를 주제로 ADB 연구소가 주관하였습니다. ADB연구소 소장인 Yoshino 박사, ADB연구소 공동의장인 Peter Morgan 박사, Thammasat 대학의 Vandenberg 교수 등 이 분야의 전문가들과 같이 발표하는 자리라 부담도 됐지만 이 또한 영광이었습니다. 실제 발표는 평소에 외국 손님들에게 자주하던 내용이라 크게 긴장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한국은 신용보증제도가 잘 운용되고 있는 국가로 알려져 있어 참석자들이 관심 있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스와질란드 참석자는 워크숍이 끝나고 자신들이 진행 중인 신용보증제도 개선안을 검토해달라고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번 회의에서 다른 나라의 여러 제도를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다양한 국가의 중소기업 정책을 한자리에서 듣고 비교할 수 있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워크숍 내내 신용보증제도가 중소기업금융의 핵심 수단으로 자주 언급되는 것을 보고 업계에 종사자로서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Q 신용보증기금의 발표는 참석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A 발표 시간이 12분으로 짧아 내용이 잘 전달될까 걱정했지만 질문이 많았던 걸 보면 그래도 핵심 내용은 전달된 것 같아 다행스러웠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질문을 하는 바람에 좀 진땀을 빼기는 했지만 대체로 의미 있는 질문들이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에서 오신 Ms. Kanakasamy (전 중소기업진흥공사 부사장)가 보증료에 관하여 질의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보증료도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내용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이라 다른 나라도 비슷한 고민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증료는 리스크 프리미엄 성격으로 금리와 별개로 봐야 한다고 대답했지만 후속 질문이 더 있을까봐 살짝 긴장했습니다. 다행이 쉽게 수궁을 해줘서 잘 넘어갔습니다.

Q 신보는 지난 5년간 정책자문 및 지식공유사업을 활발히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보의 컨설팅이 해당국의 실질적 정책 도입으로 이어진 예를 공유해주세요.

A 말씀하신 대로 신보는 최근 몇 년간 KSP사업을 매우 활발하게 해왔습니다. 2007년 처음 KSP에 참여하여 베트남, 카자흐스탄, 몽골, 인도네시아, 요르단 등 8개국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척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수원국의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몽골과 인도네시아의 경우 신보의 컨설팅이 해당국의 세무 제도 개선과

중장기 발전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력만 된다면 좀 더 깊이 있게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더 큰 성과를 내고 싶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KSP를 수행하면서 나름 보람이 있었지만 1년짜리 정책자문 사업의 한계를 많이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나 국제기구가 지원하는 중장기 컨설팅에 비해 KSP 사업은 개도국의 정책을 통째로 바꾸어 내는 성과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컨설팅 기간이나 비용의 문제는 아닙니다. KSP는 발주기관이나 정부가 지나치게 절차를 통제하고 산출물인 보고서의 완성도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업의 과정 속에서 개도국 공무원과 우리 연구진이 서로 배우고, 한국을 신뢰하고 우호적으로 변해가는 개도국을 보게 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좀 더 긴 안목으로 사업을 바라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Q 이번 워크숍에서 신용보증제도를 도입하려는 여러 기관이 한국의 경험을 배우고 싶어 했는데 한국의 신용보증제도 설립 경험이 특별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A 앞에서 말씀 드린 대로 중소기업금융 워크숍에서 신용보증제도가 그렇게 자주 등장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네요. 물론 한국에서도 신용보증제도는 중소기업들이 대출받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제도가 된지 오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신용보증제도가 잘 발전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신보 설립 당시에 공무원들과 신보 직원들이 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고민을 많이 해서 우리 금융환경에 맞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잘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은행의 의무 출연과 직접 보증심사 방식은 다른 나라에서 잘 찾아보기 힘든 성공사례입니다. 정교한 신용기반 평가시스템의 구축도 매우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반복되는 경제위기도 신용보증이 발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980년 오일쇼크, 1993년 금융실명제,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신보가 위기 극복의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개도국 정부와 공무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점은 신용보증제도는 민간이 주도하는 일반적인 금융시스템과 달리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정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Q 해외사업 초기 단계의 해금협 회원기관과 공유하고 싶은 노하우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A 해금협 회원기관들 대부분이 최소 신보만큼은 해외사업을 잘하고 있는 듯하여 제가 공유할 수 있는 특별한 노하우는 따로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여러 회의에서 신보가 배워야 할 점이 훨씬 더 많은 점을 느껴왔습니다. 또 해외사업은 기관마다 각자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점도 쉽게 노하우를 이야기하기 어려운 이유인 것 같습니다.

신보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KSP나 정책자문 사업에 국한해서 몇 가지 매우 현실적인 경험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도국에 정책자문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른 나라와 공유할 수 있는 우리만의 핵심적인 제도, 역량, 경험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컨텐츠화하고 통계자료에 기반한 프리젠테이션도 잘 준비되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핵심 컨텐츠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외국어 역량을 갖춘 인적자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핵심 인력을 해외업무에 투입할 여건이 안 되는 기관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조직이 지속적으로 글로벌 인재를 키워나가는 노력을 기울리 하면 안 되겠죠? 다음으로 개도국들이 우리의 컨텐츠를 배우겠다는 수요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양한 국제회의 참가, 방문단에 대한 강의나 연수를 통해서 우리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다 보면 개도국들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진의 인식 전환입니다. 경영진들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실제로 경영진의 교체로 해외사업의 성패가 좌우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신보도 해외사업을 잘 하고 싶은 욕심은 있지만 여러 어려움에 자주 부딪힙니다. 해금협 회원기관들이 잘 협력해서 시너지를 높이고, 특히 금융위와 해금협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해금협의 작지 않은 변화와 각별한 노력 덕분에 신보의 해외사업도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회원기관들의 해외협력업무 발전에 큰 보탬이 되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기고

아태지역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자금조달 개선

Hongjoo Hahm

Deputy Executive Secretary for Programmes
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합총주 사무처장



어느 국가에서든 중소기업은 기업 유형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고용창출, 능력개발 및 기술적 지식 보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그간의 연구를 통해 자금 확보가 용이해지면 보다 활기 넘치고 창의적인 신규 기업이 더 많이 탄생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¹ 그러나 대기업과 비교하여 중소기업은 제도권 금융시스템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여신을 높은 리스크 및 거래 비용을 이유로 꺼리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을 제외한 비영리 단체, NGO, 포용적 기업 및 사회적 기업을 포함한 서민금융기관은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저소득계층과 서민, 소기업 및 스타트업에 제공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높은 접근성과 낮은 운영비용을 이유로 서민금융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여 중소기업 대상 대출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 성공적인 예시가 바로 인도의 ICICI은행과 특정 서민금융기관 간의 파트너십이다. 이 파트너십을 통해 서민금융기관 직원들이 ICICI은행을 대신하여 대출을 협상 및 제공하고 계좌의 개설과 유지, 그리고 대출금 회수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 또는 대출 이자의 일부를 수령하게 된다. ICICI은행은 교육과 멘토링을 통해 서민금융기관이 충분한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다.²

민간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상 대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기관 및 신용보증기관 등 여신기관과 담보등기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신용 리스크에 관한 정보의 양과 질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태지역에서는 일본의 신용 리스크 데이터베이스(CRD)가 모범적인 사례다. 동 데이터베이스는 신용보증기관과 금융기관이 회원으로 있는 CRD 협회가 관리한다.³

정부개발은행은 혁신적인 상품을 통해 시장실패를 방지하고 신규시장을 형성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금융 포용성을 증진시키고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후자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시중 금융기관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일례로 2013년과 2014년에 한국산업은행이 신규 기술을 개발하거나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일련의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며, 그 일환으로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자금뿐 아니라 네트워킹 기회와 멘토링까지 제공하는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시행한 바 있다.⁴

이에 더하여 소위 핀테크라 불리는, 현대적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생 회사들은 중소기업의 금융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아태지역의 2016년 핀테크 투자는 처음으로 북미 지역 규모를 넘어서며 전세계 최고를 기록했다.⁵ 역내에서는 중국의 투자가 가장 압도적이었다. 전자상거래 업계의 거물 알리바바의 금융서비스부문 계열사이자 중국의 온라인 지급결제플랫폼 알리페이를 운영하고 있는 앤트 파이낸셜(Ant Financial)이 2016년 유치한 투자는 역내 총 핀테크 투자의 40%에 달했다.⁶ 연간활동 사용자 수 4억 명을 자랑하는 앤트 파이낸셜은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하여 신용을 평가하고 기업전자금대출을 심사한다.⁷ 그러나 핀테크의 발전이 중소기업 자금조달을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며, 최근 발생한 일련의 P2P 대출 플랫폼 관련 사건으로 인해 이 사실이 더욱 피부로 와 닿게 되었다.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2030어젠다의 포용적 성장, 고용 및 혁신 관련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소기업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는 회원국들이 금융접근성 제고에 효과적인 정책을 시행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이를 위해 UN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위원회(UNECLAC),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 포용적 금융연합(AFI), 아시아 재단 및 한국의 해외금융협력협의회와 함께 중소기업

업의 금융 접근성과 아시아태평양 및 라틴 아메리카 지역 개발은행의 역할을 주제로 워크숍을 구성했다.

동 워크숍은 각국의 규제 체계, 정책, 비즈니스 모델, 여신 인프라에 대한 내용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은행 및 핀테크의 역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것을 권고했으며, 이를 위해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는 이미 공동 연구체계를 개발 완료한 상황이다. 역내 일부 국가들은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관련 연구 진행을 위한 지원을 받을 것이며, 모든 연구가 완료된다면 국가간 비교 및 역내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모범사례 및 가이드라인의 정립이 가능할 것이다.

¹ Demirgüç-Kunt, A., T. Beck, and P. Honohan. 2008. Finance for All: Policies and Pitfalls in Expanding Access. http://siteresources.worldbank.org/INTFINFORALL/Resources/4099583-1194373512632/FFA_book.pdf.

² Subhanij, T. 2016. "Commercial Bank Innovations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Finance: Global Models and Implications for Thailand." ADBI Working Paper 583. <http://www.adb.org/publications/commercial-bank-innovations-sme-finance-global-models-implications-thailand/>

³ Kuwahara, S., N. Yoshino, M. Sagara, and F. Taghizadeh-Hesary. 2015. "Role of the Credit Risk Database in Developing SMEs in Japan: Lessons for the Rest of Asia." ADBI Working Paper 547. Tokyo: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http://www.adb.org/publications/role-credit-risk-database-developing-smes-japan-lessons-rest-asia/>

⁴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2016. "The Role of Development Banks in Promoting Grow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South." http://unctad.org/en/PublicationsLibrary/gdsecidc2016d1_en.pdf

⁵ <https://newsroom.accenture.com/news/blockbuster-deals-in-china-make-asia-pacific-the-leader-in-global-FinTech-investments-accenture-analysis-finds.htm>.

⁶ *Ibid.*

⁷ McKinsey & Company. 2016. Weathering the storm: Asia-Pacific Banking Review 2016.

⁸ <https://www.ft.com/content/41e706f4-d631-11e6-944b-e7eb37a6aa8e>.

이란 자본시장포럼 및 투자유치엑스포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2017년 10월 29일(일)부터 11월 2일(목)까지 2박 5일간 이란 최대 행사 중 하나인 이란 자본시장포럼 및 투자유치엑스포에 초청되어 키시 섬(Kish Island)을 방문했다. 금융결제원, 보험개발원, 신용보증기금,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KDB 산업은행 및 은행연합회 담당자로 구성된 출장단은 한국을 대표해 이란 증권거래위원회(SEO)가 개최하는 자본시장 포럼 Iran Capital Market: Highly Diversified with Great Potential 및 투자유치엑스포에 참여해 양국간의 금융협력 관계를 강화했다. 이번 협력사례는 2016년 10월 이란 증권거래위원회 및 중앙은행 고위공무원 초청연수 및 한-이란 금융협력세미나를 계기로 진행되었다.



“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2017년 10월 29일(일)부터 11월 2일(목)까지 2박 5일간 이란 최대 행사 중 하나인 이란 자본시장포럼 및 투자유치엑스포에 초청되었다.

”

이란 자본시장포럼 및 투자유치 엑스포 출장단



기고 이란 자본시장: 성장과 다양성의 보고

Shapour Mohammadi
Chairman
Securities and Exchange Organization (SEO)
샤 푸르 모하마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다양한 측면에서 중상위 소득국가로 분류되는 국가로서 인구는 약 8000만 명이다. 세계 3위 규모의 원유 및 가스 매장량을 자랑하는 에너지 강대국인 이란은 자타가 공인하는 다양성과 지정학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역내의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올해 이란 자본시장은 50주년을 맞는다. 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선도적인 시장으로서 그 화려했던 반세기 역사 동안 다방면으로 눈부신 발전이 있었다. 두 개의 증권거래소와 두 개의 상품거래소, 총 네 개의 거래소가 시장 내에서 거의 모든 유형의 글로벌 금융상품과 원자재를 활발하게 취급하고 있으며 IT 인프라 또한 훌륭하다. 이제 이란 자본시장은 인적 자원과 다른 국가들을 추격하고자 노력하는 그들의 근면성실함에 크게 의존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본시장으로 발전하였다.

자본시장의 유일한 규제 및 감독 기구로서 이란 증권거래위원회(SEO)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SEO는 시장참여자들의 행위가 현행 법규를 준수하는지 감독하고 시장의 효율성,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모든 국내 및 해외 투자자들을 위해 안전하고 투명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SEO는 글로벌한 최신 트렌드 및 모범 관행을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주력하며, 특히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의 시행 이후로 더욱 노력해왔다. SEO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회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란의 거래소들은 세계 거래소연맹(WFE)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는 여러모로 이점이 있다. IOSCO 가입 이후 SEO는 관련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사업 확장을 위한 양자협정 및 MOU도 다수 체결할 수 있었다. 이미 몇 개 거래소와 이란 중앙예탁결제기관(CSDI)은 해외기관과의 공동 프로젝트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에 더하여 SEO는 금융지식교육 측면에서도 규모 있고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일례로 2004년에는 SIDSCO라는 계열사를 설립하여 금융교육을 주관하고 자본시장 자격증 시험 주최, 투자 문화 개선을 위한 행사 주최 및 전 연령층을 위한 자료 출간 등을 맡아 진행토록 했다. 그 결과 국내 및 해외 투자자의 총 거래 계좌 수는 900만 좌를 넘어섰으며, 이는 이란 인구의 10퍼센트에 가까운 수치이다.

테헤란주식거래소(TSE)와 이란채권거래소(IFB)가 증권거래소에 해당하며, 이란상품거래소(IME)와 이란에너지거래소(IRENEX)가 상품거래소로 분류된다. 이란중앙예탁결제기관은 시장의 유일한 결제, 청산, 예탁 및 등록 기관이다. 현재 약 45개 부문 400개 이상의 회사가 테헤란주식거래소와 이란채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며, 원유, 석유화학, 공산품, 농산품 및 전기 등이 이란상품거래소와 이란에너지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요 품목이다.

SEO의 감독 하에 시장참여자에게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금융기관도 있다. 108개의 투자증개회사와 107개 이상의 뮤추얼펀드, 그리고 투자은행, 투자자문사, 자산관리회사, 투자회사 및 데이터 관리회사 등 인가기관들이 시장에 존재한다.

2005년에 도입된 새로운 증권시장법에 의거하여 거의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이 이란 자본시장에서 현물 거

래, 선물, 옵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다. 이란 자본시장은 온전히 샤리아에 기반한 이슬람 자본시장으로, SEO는 이자라(Ijarah), 무라바하(Murabahah), 살람(Salam), 이스티스나(Istishna) 및 무샤라카 수쿱(Musharaka Sukuk) 등 이슬람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전 세계 해외 투자자를 자국 자본시장으로 유치했다. SEO는 약 10년간 이슬람 금융부문에서 이슬람금융서비스 위원회(IFSB) 및 이슬람협력기구(OIC)와 협력해 왔다.

지난 15년 간 테헤란주식거래소는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며 주요 시장지표상 세계 최고로 손꼽히는 거래소로 거듭나기도 했다. 2017년 한 해 동안 이란 자본시장은 여타 해외 시장에 비해 강세를 보였다. 2017년 테헤란주식거래소 및 이란채권거래소 지수는 2016년 대비 각각 20퍼센트와 19퍼센트 상승했으며, 2017년 증권시장과 수쿠크시장의 시가총액은 2016년 대비 각각 14.4퍼센트와 50.8퍼센트 증가했다. 파생상품 시장은 2017년 86퍼센트 하락하며 주춤했지만, 전반적인 증권시장의 시가총액은 15.8퍼센트 성장했다.

2017년 증권 거래규모는 565억 달러로 2016년 대비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테헤란주식거래소에서 거래된 165억 달러와 이란채권거래소에서 거래된 144억 달러는 주식, 파생상품, 수쿠크 및 ETF 거래가 주를 이루었고, 실물시장 및 에너지시장을 포함한 원자재시장의 경우 그 규모가 257억 달러 가량이었다.

설립 이후 SEO는 줄곧 적극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수용해왔다. 최근에는 금융기관, 그 중에서도 신용평가기관을 대상으로 한 규제의 코드화 및 제정을 위해 주로 힘써왔다. 상장회사가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 IFRS를 준수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 또한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다.

신용평가기관은 가장 최근 시장에 진입한 참여자인데, 2005년 11월 새로운 증권시장법이 도입된 이후 이란에서는 신용평가기관이 처음으로 인가되기 시작했다. 이는 이란 자본시장이 현대화 및 글로벌화 되고 있다는 강한 방증이다. 뿐만 아니라 SEO는 금융상품 측면에서도 시장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통화연계 수쿠크, 크라우드펀딩 등을 도입하여 시장 다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SEO의 최우선목표는 안전한 투자처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고, 이에 국내 및 해외 투자자들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구축함으로써 투자자들을 위한 일종의 안식처 같은 시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수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란 시장은 여타 신흥시장에 비해 매우 다양하고 높은 수익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란의 자본시장기관들을 대표하여, 많은 분들이 이란을 방문해서 국민의 친절함도 경험하고,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유망한 시장에 투자하기를 권하고 싶다.

제4차 한·영 금융협력포럼

The 4th UK-Korea Financial Cooperation Forum

해외금융협력협의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영국 금융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및 영국 재무부(HM Treasury)는 2017년 11월 14일(화)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제4차 한·영 금융협력포럼'을 개최했다. 한·영 금융협력포럼은 양국간 금융협력 강화 및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영국과 한국에서 순차적으로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제4차 한·영 금융협력포럼은 4차 산업혁명 등의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① 보험 및 연기금과 ② 금융혁신 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국 금융당국 및 업계 임직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개회사

최종구 | 위원장 | 금융위원회



축사

Katharine Braddick | Director - General | HM Treasury



Program 프로그램

시간	내용	
09:30 ~ 09:50	개회사 최종구 위원장, 금융위원회 축사 Katharine Braddick 차관보, 영국 재무부	
09:50 ~ 10:20	주제 발표 발표 1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당국의 공공정책 과제' Andrew Bailey 청장, 영국 금융감독청 발표 2 '금융분야 혁신 촉진 및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신성환 원장, 한국금융연구원	
10:20 ~ 10:40	휴식	
10:40 ~ 12:00	주제별 토론 1 '보험 및 연기금'	주제별 토론 2 '금융혁신'
12:00 ~ 13:30	오찬 오찬사 · 유광열 상임위원, 금융위원회 · Charles Hay 대사, 주한 영국대사관	

주제발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당국의 공공정책 과제

Andrew Bailey | Chief Executive | 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



영국 FCA 청장 Andrew Bailey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당국의 공공정책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 56,000여 개의 금융회사를 규제하고 있는 FCA의 운영목적은 소비자 보호, 금융제도 보호 및 활성화와 소비자 이익 중심의 경쟁 유도 등이다. FCA는 도전과제를 파악하고 진단한 뒤 해결방안을 구축하고 이를 평가하는 의사결정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전했다. Bailey 청장은 현재 세계적인 도전과제로 꼽히는 고령화 문제에 대해 FCA의 해결책을 발표했다. 인구학적 변화는 금융서비스의 미래를 변화시킬 것이며 고령화 인구 증가에 따른 해결책 구축이 시급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므로 이해당사자들은 복합적인 사회적 이슈를 고려하여 미래 지향적인 규제를 구축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CA는 고령화에 따른 금융서비스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층에 대한 이해, 소매금융사와의 협력, 제3자의 접근 허용, 노후대비 대출, 장기 치료 지원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제4차 한·영 금융협력포럼

The 4th UK-Korea Financial Cooperation Forum

주제발표

금융분야 혁신 촉진 및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신성환 | 원장 |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신성환 원장은 '금융분야 혁신 촉진 및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금융혁신은 생산적 금융 및 포용적 금융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전했다. 생산적 금융은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시키며 포용적 금융은 소비자 중심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금융 보안 및 금융 안전망 구축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기업금융 강화, 데이터 기반 관계금융, 기업 구조조정, 세계채권 등이 생산적 금융전략이라고 발표했다. 나아가, 금융혁신으로 플랫폼과 P2P 거래가 금융시스템의 주류 현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금융포용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지만, 기술의 속성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기에 정보 격차와 금융소비자 보호의 기본 원칙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핀테크가 금융포용을 확대시킬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고 있으므로, 기존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소외계층이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은산분리 문제, 기술혁신과 규제 타이밍, 데이터 프라이버시 등 앞으로 직면하게 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며 업권별 규제에서 기능별 규제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포지티브시스템에서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주제별 토론1

보험 및 연기금

주제별 토론 1 '보험 및 연기금' 세션에 참여한 영국 재무부, 금융감독원, 코리안리저보험, Baillie Gifford, 국민연금연구원 및 AIA 대표자들은 양국의 보험산업 현황 및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고령화 및 4차 산업혁명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및 제도 개편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01 Katharine Braddick 02 Jongsoo Park 03 David Song 04 Jennifer Leong 05 Hosun Yoo 06 Saeyong Lee 07 Gyu Dong Kim 08 Sangpyo Yim

주제별 토론2

금융혁신

주제별 토론 2 '금융혁신' 세션에 참여한 금융위원회, 핀테크지원센터, Level39, WorldFirst, SC제일은행, 키움증권 및 Trustonic 대표자들은 핀테크와 4차 산업혁명에 있어 앞으로의 정책과제를 설명하고 금융혁신 활용방안 및 발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인공지능, 모바일결제 플랫폼, 복수화폐 결제시스템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 설명했다.



01 Hong Min Joo 02 JongHoon Kim 03 HoBum Kim 04 Ben Brabyn 05 Yoo-Shin Jung 06 Jeff Parker 07 Ben Cade

제4회 국제금융협력포럼

The 4th International Financial Cooperation Forum



해외금융협력협의회와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공동으로 '국제금융협력포럼(International Financial Cooperation Forum)'을 개최해 왔다. 국제금융협력포럼은 해금협 회원사의 해외협력사업 파트너기관(금융당국 또는 공공·민간)의 책임자급 인사를 2박 3일간 한국으로 초청하여 국내외 금융전문가와 함께 글로벌 금융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오·만찬 행사, 회원사 방문, 문화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추후 협력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제4회 국제금융협력포럼은 '글로벌 협력과 공동번영을 위한 주요 금융 동력'이라는 주제 하에, 공동번영을 위한 글로벌 협력사업과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는 금융 동인을 논의하기 위해 2017년 12월 5일(화)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에는 라오스 재무부의 Thippakone Chanthavongsa 차관과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의 Hong Son Pham 부위원장 등 해외 금융당국의 고위인사뿐만 아니라 유럽투자은행, 이집트 신용보증사, 몽골 예금보험공사, 태국 증권거래소 등 12개국의 다양한 해외 금융기관에서 31명의 주요인사가 참석했다.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 송준상 상임위원과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신성환 의장, 20개 회원사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신성환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5년간 한국의 금융발전 경험과 지식의 공유를 통해 글로벌 차원의 금융협력을 이루어온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역할을 회고하면서 제4회 국제금융협력포럼에 참석한 글로벌 리더들이 금융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공동의 발전을 모색하며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송준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환영사를 통해 금융기관들의 활동 무대가 전 세계로 확장되면서 국제협력의 필요성도 증가했으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상호간 경험공유와 공동 대응 등 국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Thippakone Chanthavongsa 라오스 재무부 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라오스와 주변국의 금융협력 사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이후 포럼에서 논의될 각국의 경험들이 다른 참석자들에게 통찰을 제공하고, 새로운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왼쪽부터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의 Hong Son Pham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송준상 상임위원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신성환 의장
Thippakone Chanthavongsa 라오스 재무부 차관



제4회 국제금융협력포럼

The 4th International Financial Cooperation Forum



본회의

공동 번영을 위한 글로벌 협력사업과 효과

오전 본회의에서는, 한국의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그리고 이집트 신용보증사가 수행하는 글로벌 금융협력 사업의 중요성과 추진방향 등 각각의 사례를 살펴보고 유럽투자은행이 수행하는 국제협력 사업과 한국과의 협력관계를 소개하였으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관심을 갖는 다양한 분야의 혁신과 이를 위한 금융지원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예금보험분야에서의 금융 협력

윤성욱 | 팀장 | 예금보험공사

윤성욱 팀장은 예금보험제도가 금융시스템 안정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예금보험공사와 해외 예금보험기구들과의 다양한 협력 활동을 소개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예금보험공사가 2010년부터 정부 주도 컨설팅 프로젝트에 3차례 참여하고, 2014년부터 매년 자문관을 파견함으로써 몽골 예금자보호법 제정에서부터 예금보험기구 설립·운영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기여했는지 보여주었다. 또한, 2017년 론칭한 글로벌 예금보험제도 연수프로그램인 「One Asia with KDIC」의 성과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예금보험공사가 설립한 교육센터인 KDIC Global Academy에서 실시되는 이 프로그램은 첫 해에 9개국 예금보험기구 임직원 24명이 참여하여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향후 아시아 뿐만 아니라, 중동, 아프리카 지역까지 연수대상을 확대하여 금융 한류를 통한 국가 브랜드 향상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해외 지식공유사업을 통한 아시아 역내 경제안전망 구축

최선준 | 팀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최선준 팀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자산의 인수 및 정리, 대체투자 및 관리, 국·공유재산의 개발 및 관리, 온라인 공공자산처분 시스템 등 다양한 자산관리 전문성에 바탕을 둔 해외 컨설팅을 통해 지역경제 안전망 구축에 기여해왔다고 발표했다. 특히 베트남 부실채권정리기관인 DAIC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4차례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DAIC의 자산관리 역량을 개선하고 베트남의 금융 및 경제 안정화에 기여한 경험을 소개했다. 또, ADB의 「몽골 은행산업 회복 및 금융안정성 강화」 프로그램의 TA로 참여하여 몽골 정부에 컨설팅을 제공 중인 경험도 소개했다. 나아가 지난 2013년, ADB와 공동으로 지역경제협력 플랫폼인 IPAF를 창립하여 아시아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자산관리 전문성을 공유하는 등 꾸준히 해외사업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신흥국의 금융협력 발전의 길 - 이집트 신용보증사의 경험

Nagla Bahr | Managing Director | Credit Guarantee Company Egypt

Nagla Bahr 대표이사는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글로벌 금융시장의 효율적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협력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모든 시장이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충격에 대응하고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기준과 신뢰의 금융체제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글로벌 금융협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설명했다. 이집트 신용보증사는 유럽의 보증기관연합(AECM), 프랑스의 보증기구(BPI Finance), 말레이시아의 보증기구, 한국의 신용보증기금 등 전세계 주요 보증기구들과 다양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지속적인 국제금융협력을 통해 미래에는 이집트 신용보증사가 기술 및 시스템 면에서 더욱 발전한 신용보증 포트폴리오를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유럽투자은행의 글로벌 협력사례

Laura Piovesan | Head | European Investment Bank

Laura Piovesan 국장은 유럽투자은행이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다자간 대출 및 투자기관이라고 소개하며 국제 자본시장에서 기금을 모아 일자리와 건강, 교육, 도시개발, 에너지,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에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 환경 및 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산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하고 있으며, 기후금융의 개척자로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환경 및 에너지 분야에 1,000억 USD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럽투자은행은 중동 및 남아공과 같은 유럽 외 지역에도 활발히 투자하고 있으며, 혁신지원과 관련해서는 독일의 에너지 효율 솔루션 개발, 핀란드의 교육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를 주요 사례로 꼽았다. 마지막으로, 유럽투자은행과 한국의 기술보증기금의 지식공유 등 협력사례에 대해 소개하고 발표를 마쳤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혁신금융정책 사례

Steve Rogers | Deputy Head | European Commission

Steve Rogers 부국장은 유럽시장의 문이 혁신기술과 혁신기업에게 활짝 열려 있다고 소개했다. 하드웨어와 모바일, 헬스케어와 생명공학 산업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시장의 흐름은 과학 및 혁신기술 집약적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예로 빅데이터 등 혁신기술이 유럽의 교통 및 에너지 산업에 가져온 변화에 대해 언급하며 혁신기술이 경제와 사회에 가져오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혁신금융정책 사례로 InnovFin이라는 금융기구를 소개했다. 현재 유럽에 베이스를 둔 10,000여개의 KET(Key Enabling Technologies)기업 중 절반이 자금조달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런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InnovFin을 설립하여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새로 도입한 혁신 지원 사례로 테마형 투자 플랫폼, blended finance 및 자동 기술평가시스템, 클라우드펀딩 등을 소개했다.



제4회 국제금융협력포럼

The 4th International Financial Cooperation Forum



패널토론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는 금융 동인

오후에는 University of Cambridge의 Garrick Hileman 박사를 기조연설자로 초빙하여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금융혁신 중 비트코인, 더 나아가 암호화폐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이 갖는 경제적 의미에 대해 논의했다.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의 과거, 현재와 미래

Garrick Hileman | Research Fellow | University of Cambridge

Garrick Hileman 박사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블록체인 기술의 초창기 구현체 개발과 그 문제점, 실증 데이터 분석 결과와 스테이블 코인(stablecoin) 및 향후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암호화폐의 과거로는 암호화폐 기술의 개척자이자 선구자인 David Chaum과 1997년에 등장했던 HashCash에 대해 소개했다. 암호화폐의 문제점으로는 이중지출(double-spending)을 꼽았으며, P2P 네트워크를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Garrick Hileman 박사가 추진 중인 글로벌 암호화폐 벤치마킹 연구에 대해 설명했다. 동 연구의 산업별 블록체인 기술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금융산업에서의 이용이 가장 대중적인 것으로 확인되며 금융서비스 및 은행업무 부문에서의 블록체인과 분산원장 기술의 이용이 가장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블록체인과 분산원장 기술 보급의 확대를 저지하는 주요 원인으로서는 다양한 법적 위험 요소들과 불명확한 규제환경을 꼽았다. 한편,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화폐에 비해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며 불안정함의 주요 원인으로서는 투기에서 오는 변동성을 꼽았다. 그는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이 암호화폐의 환율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으며, 주요 스테이블 코인 중 Tether, Dai, Basecoin, ARC 등의 종류 및 특징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과거 산업혁명에서 프로세스의 발전이 자본주의의 전진에 초석 역할을 했듯이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프로세스의 발전도 향후 세계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Session 1

4차 산업혁명이 유도하는 보험산업 변화

이후 전개된 첫 번째 패널토론 세션에서는, 보험연구원의 임준환 선임연구위원이 사회를 맡고 미국 실리콘밸리와 홍콩에 지사를 둔 생명보험회사 Gen.Life의 Stephen Monaghan 대표, 영국 보험 정보회사인 Axco의 Tim Yeates 대표이사, 한국 보험개발원의 양경희 팀장이 패널로 참여하여 저금리, 고령화 등의 금융환경 속에서 전통의 보험산업을 변화시키는 인슈테크의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다.

임준환 | 선임연구위원 | Session 1 사회자 | 보험연구원



하이퍼스케일(Hyperscale):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Stephen Monaghan | Chairman & CEO | Gen.Life Limited

Stephen Monaghan 대표는 현재 우리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이 데이터가 되어가는 세상에 살고 있으며 하이퍼스케일의 변화 즉 기하급수적인 기술의 발달에 주목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 기술의 중심에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이 자리 잡고 있으며, 30년안에 IQ 10,000 이상의 로봇이 등장하고, 은행, 보험, 서비스, 의료 분야와 관련된 수많은 플랫폼이 보편화되며,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인공지능이 만연한 시대가 올 것이라 전망했다. 다가오는 하이퍼스케일 시대에는 단돈 1달러에 AI가 의료기록을 검진하는 등 새로운 의학경제 패러다임 속에서 의학의 질과 접근성, 비용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공지능의 도입과 관련하여 최근 야기되고 있는 규제와 개인 정보보호 이슈에 대해 언급하고 그 해결책은 국가간 규제 협력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산업의 변화

Timothy Yeates | Managing Director | Axco

Timothy Yeates 대표이사는 먼저 지역별 보험료, 보험침투율, 인구, 인터넷 사용량 등을 통해 글로벌 보험산업의 현주소에 대해 간략히 소개했다. 이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보유하고자 하는 인간과는 달리 정보를 실시간 대량으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기계의 발달로 인해 보험산업에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각각 직면한 다양한 보장 격차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보험의 배분, 위험 평가, 가격산정, 운용 등과 관련한 보험산업의 규제환경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인슈테크 시대의 블록체인, 인공지능, IoT, 자율주행자동차 등이 보험산업에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위협요소에 주목했다.



제4회 국제금융협력포럼

The 4th International Financial Cooperation Forum



한국 보험산업과 인슈테크

양경희 | 팀장 | 보험개발원

양경희 팀장은 한국 보험산업의 현황과 보험사 및 보험관련 스타트업의 혁신 사례를 통해 본 변화에 대해 발표했다. 그동안 한국 보험산업은 빠르게 성장하여, 수입보험료 규모 기준 세계 7위의 보험시장으로 자리 잡았으나, 저금리, 저성장, 고령화로 대변되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를 어떻게 타계하느냐가 한국 보험사들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최근 급격한 기술의 발전은 보험산업에 새로운 위기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과연 보험업은 인슈테크를 통해 해묵은 과제인 뉴노멀 현상을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금융투자업권 블록체인 공동인증 서비스 'Chain ID' 소개

김태룡 | 실장 | 금융투자협회

김태룡 실장은 블록체인은 거래에 참가하는 사람들 모두가 정보를 공유하는 분산형 디지털장부 기술로 기존 공인인증서 방식보다 사용하기 훨씬 편리하면서도 안전성이 높다고 소개하였고 지난 10월 한국의 금융투자업권이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 공동인증 서비스인 'Chain ID'를 도입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금융투자업권이 지난해 1월 정보기술(IT)위원회를 만들어 2016년 4월부터 회원사와 함께 블록체인을 연구해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Chain ID'는 온라인 주식거래와 자금이체 같은 금융거래를 위한 인증서비스로, 한 번의 인증절차로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바로 거래가 가능하며 비밀번호, 바이오 인증 등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인증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Session 1 패널토론



Session 2 패널토론

Session 2

블록체인이 유도하는 금융산업 변화

두 번째 패널토론 세션에서는, PwC의 Marcus von Engel 파트너가 사회를 맡고 금융투자협회의 김태룡 실장, 한국예탁결제원의 안병욱 차장, 코스콤의 이상기 부서장이 패널로 참여하여 각 회원사의 공동인증 서비스, 전자투표시스템, 수익증권 양수도 서비스 사례 등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산업에 어떻게 응용되는지를 살펴보았다.



Marcus von Engel | Partner | Session 2 사회자 | PwC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시스템

안병욱 | 차장 | 한국예탁결제원

안병욱 차장은 한국예탁결제원의 설립 배경과 주요 업무에 대해 소개하고 4차 산업혁명의 특징에 대해 간략히 소개했다. 이어서 한국예탁결제원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혁신기술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현재 한국예탁결제원은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모델 개념검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기술은 전자투표 결과를 저장할 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투표 결과에 대한 해킹이나 조작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해 공신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기반 수익증권 양수도 서비스

이상기 | 부서장 | 코스콤

이상기 부서장은 코스콤이 블록체인 기반의 수익증권 양수도 거래 모델에 대한 개념검증을 완료하였으며, 이는 수익증권 거래에 블록체인 시스템 도입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구현에 성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기반 수익증권 양수도 서비스는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던 양수도 계약을 온라인화하여 거래상대방 탐색과 주문 및 호가 조회, 체결내역 조회 등 전체 거래과정을 블록체인으로 구현한 것으로 수익증권 거래 편의성 및 이용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데이터 관리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발표했다. 코스콤과 한국 IBM은 지난 5월부터 4개월간 수익증권 거래 업무 검증 및 블록체인 거래 플랫폼 개발을 진행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데이터 접근 관리 및 암호화, 코스콤의 공인인증서비스 '싸인코리아(SignKorea)'를 통한 사용자 확인 등의 기능을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코스콤은 이번 블록체인 기반 기술구현을 통해 블록체인 거래 플랫폼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공동 초청연수 지원

해외금융협력협회의

회원사 간 공동연수 지원사업은 2개 이상의

회원이 같은 시기에 해외사업(초청연수 등)을 진행하여

공동행사(연수, 세미나 등)를 개최할 경우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관별 개별 진행으로 인한 사업 중복을 방지하고 회원사 간 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한국신용정보원·NICE 평가정보,

금융결제원·해외금융협력협회의 공동사업이 해금협 지원을 받았다.



한국신용정보원·NICE 평가정보

라오스 중앙은행 초청 공동 초청연수

한국신용정보원과 NICE평가정보는 2017년 9월 11일(월)부터 14일(목)까지 3박4일간 '라오스 중앙은행 신용정보국 초청 공동연수'를 진행했다. '한국의 신용정보시스템 벤치마킹'을 주제로 한 이번 연수는 라오스 신용정보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라오스 중앙은행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개최되었다. 연수기간 동안 라오스 중앙은행 직원들은 한국의 신용정보 인프라를 소개받고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과 CB사의 역할 및 업무에 대해 학습했다. 또한, 데이터 처리 및 CB서비스를 설명 받고 NICE 평가정보 데이터 센터를 방문했다.



금융결제원·해외금융협력협회의

캄보디아 정보통신부 초청 공동세미나

금융결제원과 해외금융협력협회의는 2017년 12월 14일(목) 뱅커스클럽 16층에서 '캄보디아 정보통신부 초청 공동세미나'를 진행했다. 캄보디아 우편통신부 차관, 재정경제부 차관보 등 6명의 고위 관료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캄보디아 금융거래 및 전자상거래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전자서명 도입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캄보디아의 금융산업 현황과 한국의 금융·전자상거래 안전성 관련 선진사례가 논의되었다.



정례회의 및 간담회

08

8월 정례회의

일 시 2017년 8월 25일(금) 16:00~18:00

장 소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

참여기관/인원 18기관 / 28명

태국 재무부와 공동 개최하는 한·태국 금융협력포럼과 UN ESCAP, UN ECLAC과 공동 개최하는 중소기업금융 워크숍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공유하고 주요 하반기 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을 보고하고자 8월 정례회의를 개최함

09

9월 정례회의

일 시 2017년 9월 22일(금) 16:00~18:00

장 소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

참여기관/인원 17기관 / 24명

이란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이란 자본시장포럼 및 투자유치 엑스포' 참여 여부 및 해금협 회원사간 공동행사 지원 여부 의결을 위해 9월 정례회의를 개최함. 또한, 2017년 상반기 반기보고서 CFC BiAnnual Vol. 1 발간 및 배포 완료를 안내함.

10

10월 정례회의

일 시 2017년 10월 27일(금) 16:00~18:00

장 소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

참여기관/인원 12기관 / 22명

한·영 금융협력포럼 및 제4회 국제금융협력포럼에 대한 진행상황을 보고하고자 10월 정례회의를 개최함. 또한, 2017년도 신사업으로 의결된 '이란 투자유치엑스포 및 자본시장포럼'에는 2박 5일 일정으로 한국거래소, 금융결제원, 보험개발원, 신용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 KDB산업은행, 은행연합회가 참여하기로 함.

11

11월 정례회의

일 시 2017년 11월 24일(금) 16:00~18:00

장 소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

참여기관/인원 12기관 / 18명

해금협 회원사간 공동행사로 금융결제원과 해외금융협력협의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캄보디아 정보통신부 초청 공동세미나' 관련 안내 및 제4회 국제금융협력포럼 진행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11월 정례회의를 개최함.

12

12월 정례회의

일 시 2017년 12월 15일(금) 17:00

장 소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

참여기관/인원 14기관 / 21명

2017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하기 위해 12월 정례회의를 개최함.

